

한국 문화 창달의 핵심 기관이기를

심재기 · 제5대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국립국어원이 어느새 스무 돌을 맞았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때에 10주년을 기념하여 ‘10년사’를 간행한 것이 엊그제 같아 저의 감회는 더욱 크고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 세월만큼 국어원의 발전도 놀라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10년 전의 예산 규모는(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의 5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어원의 살림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으며 그동안 국어원 임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업무에 열성을 다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요, 발전입니다. 진실로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분명코 역대 원장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 국어원의 발전에는 커다란 굴곡과 고비가 없지 않은 듯합니다.

첫째는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명칭이 ‘국립국어원’으로 바뀌는 조직 내부의 구조적 변화일 것이고 둘째는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만 국어원의 업적과 성과를 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옳으니 그르니 잘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바깥의 잡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연구라는 명칭이 떨어져 나간 것이 못내 서운합니다. 연구 기

관으로서의 기능과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합쳐진다고 해서 굳이 ‘연구’를 떼어 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국어원의 일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끊임없는 계몽으로 그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어원은 우리나라 어문 정책을 올바르게 이끌고 펼쳐 나가는 핵심 기관이므로 모든 임직원이 어떠한 난관에도 굽힘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만 문화는 정치, 경제 같은 나라 살림의 기초(인프라)입니다. 문화가 전전하고 풍요롭지 않은 사회의 정치 경제는 언제든지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의 기본이 언어 문자 생활이라는 것은 또한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 국어원은 그 언어 문자 생활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책임이 있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민족이 21세기의 세계를 이끌어 나아갈 문화 선진국이요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책임질 기관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국립국어원이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그 책임감을 통절히 느끼고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그리고 또 배전의 노력과 각오로 열심히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과 그 방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어문 정책이 과연 민족 문화 창달에 조금도 손색없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행여나 5천 년 민족의 역사와 동양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화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는가? 깊이깊이 반성하고 그 대비책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각성 위에 자신감을 가지고 국어원의 장래를 기획하고 업무에 임한다면 국어원의 미래는 21세기 한국 문화 창달의 핵심 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어원의 미래를 낙관하는 마음으로 저의 경하와 격려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